2004년 새내기 사업 계획

"04학번 공포?, 노가다? 이들과 함께 해야 새학생운동 할 수 있다."

0. 들어가며

2004학번 새내기들이 벌써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기대를 잔뜩 머금고 눈망울 초롱초롱하여 교정 어느 곳을 걷고 있습니다. 벌써 총여학생회실로 새내기들이 찾아오고 있다구요? 동장군을 몰아내는 것은 봄이 아니고 어쩌면 이 2004학번 새내기들인 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04학번 새내기들과 함께 해야 새학생운동 할만할 텐데 어디 만나볼까요?

△ : 대학에서 제일 먼저 해보고 싶은 게 뭐에요?
04 : 미팅이요^^;;
△ : 역쉬
04 : 헤헤, 농담이구요. 대학 교정을 거닐어보고 싶어요.

04 : 국립대 수학통계학부에 가야할까요? 아니면 사립대 임상병리학과에 가야할까요? 수학통계학부는 졸업 후 취업이 별로고 임상병리학과는 그래도 안정적일 것 같은데...
쪽글들 : 취업이 확실한 임상병리학과 한표
: 수학통계학부도 나름대로 괜찮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더구나 국립대잖아요. 수통 한표
: 저는 후보 29위인데요.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어디든 괜찮을 것 같은데요.

△ : 뭐 하나 물어볼게요.
04 : 네, 성심성의껏 대답할게요.
△ : 여성문제에 관심이 있나요?
04 : 음..^^;;
△ : 여학생을 접할 기회는?
04 : 첫사랑의 상처 때문에 많지는 않았어요.

△ : 대학에서 제일 해보고 싶은 게 뭐에요?
04 : 공부요.
.....중략
△ : 여학생인 거 같아서 말을 걸었어요. 여성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나요?
04 : 아직^^

위의 글들은 새내기 카페에 올라와 있는 글과 카페에 들어가 새내기에게 말을 걸어본 내용들입니다. 각 대학마다 새내기들이 자발적으로 카페를 만들어 모임도 하고 여러 정보도 주고 받고 있는데요, 이미 새내기들은 대학생활을 시작한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대학생활을 주체적으로 만들어나가고 있다는 말이지요!

자, 우리 2004학번 새내기들과 함께 힘차게 2004년을 만들어나갑시다.
새내기들과 함께 해야 새학생운동 길을 만든다. 자, 길 만들러 출발합시다.

1. 2004년 새내기 사업의 의의와 중요성

1) 새 시대 새학생운동의 주역, 2004학번 새내기들을 주체로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2) 새학생운동을 구현해나가는 과정에서 새로운 여학생운동을 일구어갈 선배 일꾼들을 새로운 요구에 맞게 단련하는 첫 사업이며, 2004년 전 기간의 핵심적인 사업입니다.
3) 전여대협과 각 대학 총여학생회의 조직현황에 비추어 볼 때 아주 사활적인 사업입니다.

2. 새내기 사업을 대하는 우리들의 자세와 관점

1) 그 동안 어땠을까?(새내기 사업 평가)

① 새내기 사업 참 중요하다! 그래서 2,3월 정말 열심히 했다.
새내기 사업의 중요성은 아무리 몰라도 조금씩은 다 압니다. 그래서 새내기 맞이를 위한 여러 사업들을 계획하고 준비합니다. 새로배움터에 총여학생회를 어떻게 알려 볼까, 여학우 새로배움터를 따로 해볼까 등등 열심히 짜나갑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새내기들이 총여학생회 소모임에 묶이기도 하고 총여학생회 두리에서 함께 활동하는 간부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때만 반짝하고 마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즉, 계획이 2,3월에 그치고 말았던 경우가 많습니다. 2,3월 기간의 총여학생회 활동에 대해 후속활동을 이어나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새터 기간의 활동이라든지 여학우 새터, 새내기 맞이를 위한 다양한 선전 등 2,3월 이후에 새내기들의 관심과 참여를 어떻게 모아내고 보장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업을 진행한 후에는 그에 대한 평가와 그 사업을 이어 상승 발전시키는 후속활동들을 이어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꼭 새내기 사업에 대한 후속활동을 따로 흐름을 내어 진행하라는 것만이 아니라 향후 총여학생회 사업과 투쟁에 대해 새내기들을 어떻게 참여시키고 새내기들의 의식을 어떻게 높여나갈 것인가에 대한 흐름을 늘 총여학생회 활동을 하면서 함께 만들어나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거기에다가 총여학생회 두리로 묶일 수 있는 조직적 틀, 총여학생회 소모임, 단대 소모임, 과 소모임 등의 운영을 함께 고민해야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새내기들을 위한 후속사업의 상과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또한 그것을 담당할 주체 또한 명확하지 않습니다.

② 소모임을 꾸렸다!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았다. 소모임 주체가 없었다.
소모임을 꾸렸다 하더라도 상과 내용이 명확하지 않고, 주체는 자기 역할을 잘 모르거나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소모임 구성에 대한 계획을 새내기 사업을 한창 진행할 2,3월에 내오는 것이 아니라 3,4월이 돼서야 낸다는 것입니다.
즉, 새내기 사업에 대한 계획을 미리 만들지 못하거나 장기적 관점을 가지고 미리 구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때 그 때 따로 고민한다는 것입니다.
또 소모임을 구성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담당할 사람이 마땅히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소모임을 구성한다는 계획을 세워놓아도 실제로 소모임을 구성하기도 어렵고 운영해나갈 수도 없게 됩니다. 그러니 새내기들을 계속 묶어나갈 틀을 총여학생회 소모임으로 할 것인지, 총여학생회 간부로 둘 것인지, 새내기들의 특성을 고려하면서 총여학생회 사업 때 준비단으로 구성을 하고 후속활동을 개별적으로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 학교별 상황에 맞게 계획을 내와야 합니다.

③ 새내기 사업의 정형이 부족하다보니, 막무가내로 새내기 사업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새내기들의 의식을 파악하고 새내기들의 개별적 특성에 맞게 새내기 사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새내기들이 주체가 되어 참여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새내기 사업은 해야겠고 마음은 급하고 새내기들을 사업적으로만 결합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총여학생회 대중사업을 준비하면서 묶어내서 교양을 잘 하고 후속사업도 계속해 나간다면 괜찮겠지만 그런 활동은 없이 총여학생회 사업 있을 때만 함께 해보자고 부르고 마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 정말 관심있는 새내기가 아니고서야 남아있지를 않을 것입니다.
또 소모임을 구성해놓고 그 소모임을 자체의 내용에 맞게 운영하지는 않고 총여학생회 사업이 있을 때 거의 준비단으로 활동하게끔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함께 하다가도 새내기들이 애초 목표했던 바를 얻지 못하므로 계속 남아있지 않게 되거나 정으로 묶여 남아있다고 해도 새내기들에게 정치사상적 각성을 주는 데는 부족함이 있게 됩니다. 만약 그 새내기가 다음해 새내기 사업을 준비하는 주체가 되었을 때 또 같은 식으로 반복하며 어려움을 느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④ 선차적으로 고민을 돌리지 못했습니다.
총여학생회 기본 주체역량이 늘 요구되는 만큼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업과 투쟁을 진행하다 보면 어느새 새내기 사업은 뒷전입니다. 그러려고 해서 그런 것은 아닌데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된다고 그냥 둔다면 발전은 없이 같은 자리를 맴돌게 될 뿐입니다. 그것은 대중의 요구에 부응할 수 없게 되는 것이며, 정세를 뚫고 나갈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매 사업과 투쟁에서, 총여학생회 일상적인 활동에서 새내기들을 어떻게 총여학생회 두리로 묶어낼 것인지 늘 총화해야 합니다.

2) 새내기사업을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할까?(새내기 사업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와 관점)

① 새내기들을 자기 삶의 주인 주체로 만들겠다는 자세로 대해야 합니다.
새내기들이 자기 삶의 진정한 주인으로, 이 사회를 구성하고 발전시키는 주체로 되게 해야 합니다. 새내기들의 자주성을 발현시켜나가는 과정으로 사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총여학생회 활동을 잘 펼쳐내기 위한 과정으로서가 아니라 새내기들이 사회에 대한 주체적 인식과 자기 삶의 주인으로 되게 해야 합니다.

② 학우 대중을 책임지는 마음으로 임해야 합니다.
총여학생회 활동은 학우 대중의 이해와 요구를 수렴하고 실현하는 조직입니다. 그리고 그 요구를 학우들이 주체가 되어 풀어내게 하는 조직입니다. 학우들의 요구를 수렴하며 학우들의 대중적 참여를 만들어내는 주체역량으로서의 역할을 바로 새내기들이 함께 해나가야 합니다.
그런 데서 새내기는 새내기들이 표출하는 요구를 수렴하기도 하며 직접 풀어가는 당사라로서의 역할을 함께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직접 발로 뛰는 일꾼으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가지고 활동하도록 새내기들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총여학생회가 지금 학우 대중을 책임지는 자기 사명을 다할 수 있는 중요한 길입니다.

③ 총여학생회 사업과 투쟁을 함께 해나가는 사람으로 여성운동, 변혁운동을 함께 하는 주체로 만들어야 합니다.
여성노동권의 문제, 성폭력, 성매매, 일본군 '위안부 문제', 분단 등 여성들이 이 사회에서 처한 차별의 현실은 엄청납니다. 백짓장도 맞들면 낫다고 했는데 여성문제, 이 사회의 변혁의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지 않고서는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새내기들이 처한 현실 또한 결코 다른 현실이 아닙니다. 그들이 여성운동과 변혁운동의 길에서 주체가 되지 않고서는 결코 이 문제를 해결해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새내기들을 운동을 함께 해나가는 주체로 동지로 바라보고 평생을 함께 하겠다는 결심을 가지고 그들의 특성에 맞게끔 대하고 지속적으로 만나가야 합니다.

3) 그럼 지금, 새내기 사업 어떻게 해야 할까?

① 새내기 사업의 주체를 마련해야 합니다.
새내기 사업에 대한 장기적 계획과 구도를 마련하고 시기별로 총화하는 주체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 주체는 소모임 등을 만들고

챙기는 주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소모임도 주체로 맡아서 해나갈 수도 있지만 2가지가 서로 다른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며 주체를 맡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새내기 사업에 대한 전반 계획과 내용을 총괄하며 담당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직사업을 담당하는 간부가 맡게 되겠지요. 총여학생회 현황 상 조직사업만을 따로 담당할 조건이 아닌 단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업의 중요성에 기반하여 지속적으로 계속 챙겨나가야 할 것입니다.

② 장기적 계획과 2,3월 시기 구체적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주체의 기본고민을 바탕으로 총여학생회 구성원 모두가 이에 대한 계획을 함께 마련하고 그에 대한 중요성을 함께 인식하도록 합시다.
총노선을 고민하면서 새내기 사업에 대한 장기적 흐름을 함께 마련하도록 합시다. 새내기들의 정서와 특성을 고려하여 그에 맞게 계획을 마련하고 그 때 그 때 새내기들의 의식변화를 민감하게 파악하여 그에 맞게 새내기 사업을 짜나가도록 합시다.
그리고 새내기 사업도 처음이 상당히 중요한데 2,3월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마련하도록 합시다.

③ 학교별 주체역량을 판단하고 새내기들의 정서에 맞는 조직적 틀을 마련해야 합니다.
새내기들을 어떻게 묶어낼 것인지 계획합시다.
총여학생회 중앙 소모임을 구성한다거나 사회학과 등 관련 학과와 연계를 맺어 학과 소모임 구성을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총여학생회 간부로 바로 꾸릴 수도 있으며 총여학생회 사업의 준비단으로 지속적으로 묶어나갈 수도 있습니다.
단대에 주체가 있는 경우 단대 소모임으로 구성하거나 과여부 차원으로 과여부원들을 모집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겠습니다.
각 학교의 조직현황에 맞게 새내기들을 묶어낼 틀을 정하고, 여성문제토론회, 매체비평, 여성신문편집위, 봉사동아리(위안부 할머니 방문 등), 여성기행동아리, 영화동아리, 여성문예 동아리 등으로 내용 또한 적절하게 마련하고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토론꺼리 :
-그 동안 각 대학에서 진행한 새내기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해봅시다.
-그리고 새내기 사업을 어떻게 대해 왔는지 일꾼들 각자 평가를 해봅시다.

3. 2004학번 새내기들의 특성

1) 6.15 시대가 열어놓은 전반 사회 분위기 속에서 반미의식 등 사회에 대한 비판의식이 높고 자기 주견이 뚜렷하다.
2) 사회 전반적 경제난으로 취업문제가 새내기들의 대학선택에서부터 대학생활의 내용까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3) 월드컵, 촛불시위 등으로 집단적인 문화에 영향을 받았으며, 제국주의 사상문화적 영향으로 개인주의 성향과 성 상품화에 무분별하게 노출되어 있다.
*새내기들의 특성을 완벽하게 표현하지는 못했습니다. 새내기들의 특성을 더 파악하고 특성을 이루는 본질적인 내용을 잘 알아가도록 합시다.

4. 2004년 새내기 사업의 목표

1) 6.15 공동선언 통일시대, 여성이 주인되는 시대, 시대와 민중의 요구에 부응하는 새 시대의 주역으로 키워나가야 합니다.
2) 새 시대의 당당한 주체들로 여학생운동의 지속적인 인자들로 키워나가야 합니다.
3) 2004년 새학생운동을 만들어가는 발판이 되도록, 2005년 기층 단위 건설에서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키워나가야 합니다.

5. 새내기 사업 이렇게 하자!

1) 총여학생회 새내기 사업 주체를 정합니다.

- 주체는 그 동안의 새내기 사업에 대한 평가와 올해 계획에 대한 기본안을 마련합니다.
- 간부들과 총여학생회 두리의 학우들과 개별 토론을 진행하며 간부들의 고민도 높여내고 주체의 고민도 높여냅니다.

2) 새내기 사업 계획을 수립합시다.(새학생운동에 대한 연속선 상에서 함께 토론해 봅시다.)

- 기본적인 총여학생회 새내기 사업 방향을 정합니다.
- 단위 여학단위 주체들과 모임을 진행하여 각 단위의 새내기 사업에 대한 고민을 높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도록 합시다.
- 총학생회 차원의 새내기 사업 주체 모임에 참여하여 고민도 높여주고 내용 제안도 합니다.
- 그간 총여학생회 새내기 사업을 평가하고 역량을 고려해 총여학생회 새내기 사업 계획을 장기적이고 구체적으로 마련합시다.

3) 2,3월 새내기 사업을 진행합니다.

- 새내기들을 만나며 새내기들의 특성을 파악해나갑시다. 각 과별, 단대별 새내기 모임 등을 통해 인맥을 넓혀나갑시다.
- 각 단대와 총여학생회의 활동, 새내기 사업의 내용으로 간담회를 진행합니다. 그러면서 단위 주체를 마련하면 더 좋습니다.
- 학내 선전 등 새내기들을 맞이하는 내용들을 준비하여 학내 분위기를 장악합시다.
- 총여학생회 새내기 사업을 함께 할 주체들을 마련하고, 새내기로 구성된 준비단도 구성해봅시다.
- 새내기 새로 배움터와 총여 새로배움터를 통해 강연, 연극 공연, 주변 선전 등으로 새내기들에게 총여학생회를 알려나갑시다.
- 소모임 등으로 새내기들을 총여학생회 두리로 묶어냅시다.

4) 3, 4월

- 3.8 준비단을 구성합니다. 3.8과 600차 수요시위, 총여학생회 출범식 또는 새날열기 까지 함께 준비해나가도록 합니다.
- 소모임을 구성하고 소모임 자체 계획에 따라 운영합니다. 소모임의 일상 활동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나갑니다.
- 새로 배움터를 통해 알게 된 새내기들에 대해 지속적인 연락을 취합니다.
- 각 과 새내기들을 대상으로 하는 과별 간담회 등의 대중적인 활동을 계속 진행합니다. 그에 대한 후속활동을 진행합니다.

※ 새내기들에 대한 교양을 꼼꼼이 진행하면서 새내기들의 상황에 맞게 조직화해나가야 합니다.

5) 5, 6월

- 총여학생회 두리로 묶인 새내기들에 대한 중간 점검을 진행합니다.
- 총여학생회 여성문화제, 농활 등을 통해 새내기들을 더욱 공고히 총여학생회 두리로 묶어 세웁니다.
- 3,4월 과학생회와 함께 진행한 사업들의 성과가 계속 5,6월로 이어나가도록 하여 총여학생회 대중사업으로 총화되도록 합시다.
- 소모임 활동을 전체 학우들과 함께 공유하고 학내 여론에 영향을 주며 적극적인 활동들을 할 수 있도록 해나갑시다.

6) 7, 8월

- 새내기들의 결속을 다지고 내용적 준비정도를 높여나갑니다.
- 대중 속에서 자기 삶을 더 치열하게 해나가도록 합니다.
- 소모임 또한 자체 수련회 등을 통해 단결력을 높이고 제 역할을 올곧게 해나갈 수 있도록 합니다.
- 소모임 연합기행을 갑니다.
- 총여학생회 대중캠프 등을 계획해 과 학생회들과 함께 하며 총여학생회 사업과 투쟁으로 계속 묶어나갑니다.

7) 9, 10월

- 2학기를 시작하며 상반기 평가에 기반하여 계획을 짜고 돌아보며 알찬 활동을 전개해나갑니다.
- 새내기들이 각 과나 단대의 대중사업을 통해 주체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나갑시다.
- 1년의 소모임 활동을 대중적으로 결속 짓고 다음 대를 구성하는 등 향후 활동을 모색합니다.

- 소모임 구성원들, 총여 두리의 새내기들이 핵심일꾼으로서의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망을 모색합니다.

8) 11, 12월

- 올해를 평가하고 2005년을 준비합니다.

9) 총여학생회 대중사업과 맞물린 새내기 사업 예시

월\	총여학생회 새내기 사업 흐름	총여 대중사업 흐름	소모임	전여대협 총화 흐름
2	-새내기사업 전반 주체마련, 계획 수립 -단대, 과와 간담회를 통해 인식을 높여냄, 함께 할 인자 마련	-새로 배움터	-소모임 주체 마련 -여성문제소모임 구성 결정, 모집	
3	-준비단 구성 -소모임 총화 -새내기 사업 1차 총화	-개강사업 -3.8, 600차수요시위 -총여 출범식	-대대적 모집, 1년 계획 새내기들과 합의, 일상활동 확정 -600차 수요시위 참여 -전여대협 새내기 한마당 참여	-전여대협 총회/새내기 한마당
4	-과, 단대 모꼬지 참여 -과와 함께 하는 연속 대중사업 -관심있는학우들 계속 만들어가기	-학내 대중강좌	-학습, 토론 모임 진행, 토론내용 학우들에게도 지속적으로 알림 -소모임 모꼬지 진행	
5	-소모임 등 새내기 사업 중간 점검 -총여 대중사업과 소모임 및 총여 두리의 새내기들을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총여학생회 여성문화제 -봄농활	-자체 모임 계속 진행 -총여 대중사업과 맞물려 학내 선전, 대중강좌 또는 영화제 진행	-전여대협 출범식 또는 여학우 한마당
6	-농활을 통해 새내기들을 여학생회 주체로 과에서 자리매김	-6.13, 6.15 -여름농활	-자체 모임 계속 진행 -학과 공부도 함께 진행	
7	-새내기 집중 교양 -소모임 연합 기행 조직화 -과학생회와 함께 하는 대중사업	-소모임 연합기행	-자체 모임 계속 진행 -소모임 연합 기행 참가	-소모임 연합 기행 -전여대협 여름수련회
8	-2학기 준비	-통선대, 8.15	-자체 모임 계속 진행 -소모임 모꼬지 진행	-전여대협 통일선봉대
9	-총여학생회 대중사업을 대대적으로 -새내기들 단련사업	-학내 대중강좌, 문화제	-회원 모집 사업 진행 -자체 모임 계속 진행	
10	-과 및 단대에서 주체로 되게	-총여 대중사업	-자체 모임 계속 진행 -학우들과 대중적으로 1년 결속 짓기	
11	-1년 평가 및 2005년 준비	-총여학생회 선거	-차기 주체 선정	

6. 새내기 사업! 우선 2,3월에 잘 해야 한다.

1) 준비

① 새내기 사업 주체 마련과 새내기 사업에 대한 계획을 잘 수립합시다.

② 새내기 사업 준비단을 구성합시다.

▶새내기 사업 선배 준비단

가. 각 단대나 과별로 주체를 마련하여 새내기 사업의 기본 역량을 마련합시다.

-단대별 여학단위 주체들을 기본으로 하여 단대별로 제안을 하여 주체들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합시다.

-주체들의 준비정도를 높이기 위한 사전 토론 및 학습도 진행합니다.

나. 주체들의 활동

-총여학생회 새내기 사업에 대한 평가 및 계획을 합니다.
-자기 단위 새로 배움터에서 총여학생회 새내기 사업 계획을 풀어내며 새내기들을 직접 조직하는 주체가 됩니다.
-총여학생회 차원의 새로배움터를 진행하는 경우는 총여학생회 새로배움터에 자기 단위 새내기들을 조직하고 챙기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 총여학생회 새로배움터 운영을 함께 해나갑니다.
▶새내기 준비단
-새내기 사업을 새내기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만들어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새내기 문예단, 새내기 공연단 등을 구성하거나 새내기들과 함께 새내기 사업의 내용을 마련해봅시다.

③ 학내 분위기를 장악합시다.
-총여학생회를 알리고 새내기를 맞이하는 분위기가 물씬 풍겨나야겠습니다.
▶학내 선전
-총여학생회 알리는 선전물, 소모임 모집의 선전물, 새내기 환영 선전물, 새내기 양성평등선언 내용 등으로 학내 분위기를 장악합시다.
▶새내기 신문
-새내기들의 의식을 높여내고 총여학생회 및 전여대협을 알려냅니다.
▶새내기 의식조사 사업
-새내기들의 구체적 의식을 파악해 그에 따른 의식화 활동을 벌여나갈 수 있도록 새내기 의식조사 사업을 벌입시다.
▶새내기 양성평등 선언을 진행합시다.

2) 본 활동

① 새내기 새로 배움터

▶새터 장소 선전
-총여학생회를 알리고 총여학생회 활동을 알리는 내용
-호주제, 성매매, 일본군 '위안부' 문제, 총선 등 여성문제
-소모임 모집 사업
-새내기 양성 평등 선언 내용

▶새내기들과 여학생회가 만나는 시간
가. 단대별 새터에서 총여 또는 단대 여학생회 시간을 꼭 만듭시다.
나. 구체적 내용
-강연 : 일본군 '위안부' 문제나 성교육 올바른 연대, 성평등한 대학생활 등으로 강연을 준비합니다.
-영상물 보기 : 일본군 '위안부' 관련 영상, 성교육 성폭력 관련한 영상, 짤막한 영화 등 영상을 보고나서 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총여학생회의 설명을 영상물 보기 전후에 한번은 꼭 진행하며 영상물 본 후에 새내기들과 함께 토론을 꼭 해보아야 합니다.
-준비한 공연 보기 : 새내기 준비단이 준비한 여성문제를 극화한 내용을 보고 토론을 진행하 수 있도록 합니다. 선배들이 토론을 잘 진행하도록 새로 배움터를 준비하는 과정에 선배들에 대한 교양도 진행해야겠습니다.
-동화 다시 쓰기 등 : 우리가 많이 보았던 동화는 성차별적인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런 내용을 성평등한 관점으로 다시 써보는 것입니다.

▶뒷풀이
-새내기들과 직접적으로 친해질 수 있는 계기이며 새내기들을 파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적극적으로 함께 하면 되겠습니다.

▶양성 평등한 새내기 새로 배움터 만들기

가. 평등한 놀이 문화
-여장 남장 장기자랑 등, 사람을 희화화하고 성적으로 고착화시켜 차별을 조장하는 문화는 아예 계획하지 맙시다.
-장기자랑 등의 채점의 기준에 성평등을 넣거나 그 기준을 심사할 담당 심사위원 등을 포함시킵시다.
나. 새터 생활 수칙을 꼭 마련합시다.(전여대협 홈페이지 자료실 참조)
-잠 자리 문제나, 불평등한 상황을 분위기를 위한다는 명목 하에 지향하지 않도록 새터 생활 수칙을 만들어 모두가 즐거운 새터를 만듭시다.

② 총여학생회 새내기 새로 배움터
-총여학생회 차원으로 새내기들을 조직해 새로배움터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여학생 새내기들에게 필요한 내용, 꼭 알아야할 강연들을 준비해서 새내기들이 대학생활을 주체적이고, 평등하게 할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합니다.
-소모임 등으로 새내기들을 조직화합니다.

③ 나는야 평등 새내기, 양성평등 선언!
새내기 사업 준바과정에서부터 새로배움터 기간에 2004학번 새내기들이 양성평등에 앞장서겠다는 내용으로 양성평등 선언을 진행합시다.
그 동안 진행했던 선언운동의 방식이 아니라 참신하게 진행해봅시다.
양성 평등 선언의 내용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할까요? 의견들을 함께 모아봅시다.
양성 평등 선언문의 내용은 새내기 신문을 제출할 때 선언운동의 더 구체적 방도를 고민해 함께 제출드리겠습니다.

3) 후속 활동

-소모임과 같은 새내기들을 지속적으로 묶아나가는 틀을 마련하고 그에 맞게 새내기들을 모집하고 운영하도록 합시다.
-개강사업, 3.8, 600차 수요시위 참여 등에 대한 의조직화 사업을 계속 해나가고 이를 준비하는 주체들로 새내기들을 모아냅시다.
-양성 평등 선언을 진행하여 양성평등 선언에 함께 한 새내기라면 총여학생회 두리에 모두 모일 수 있도록 계속 총여학생회 활동을 알리고 사업해나가도록 합시다.

※ 더 구체적인 다른 방도들은 지난 시기 제출됐었던 새내기사업 계획들을 참고하세요!

7. 새내기 사업 총화 흐름(전여대협 차원으로)

우선 상반기의 총화 흐름입니다.
1차 : 대학별 양성 평등 선언, 전여대협 새내기 한마당을 통해 총화
2차 : 전여대협 소모임 연합 기행과 전여대협 수련회를 통해 총화

8. 중앙에서 제출할 것

1) 새내기 신문
① 내용 - 광고(3/8, 600차 수요시위), 전여대협 소개, 매체비평, 반미 반한나라다, 새움터 활동 수기, 십자말풀이, 새내기 양성평등선언문, 총선, 책소개, 홈페이지 소개, 영화 소개 등
② 제출 시기 - 2월 13일까지 편집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2) 새내기 의식조사 내용